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입선작

건축계 의사 무시

우수작에 安瑛培, 趙昌翰氏 合作品

국회사무처가 중지와 심혈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상징적 민주전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민 일반으로부터 의사당설계에 대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제시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성과 무모성을 들어 내어 건축계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계획안이 모든 사회적 반응을 무시한 채 마감일인 8월12일에 총 응모자 8명이란 기현상을 가져 오고 말았다.

이들 8명의 작품은 젊은 신진작가와 학생작품으로 당국은 이를 8월말 까지 심사, 우수작에 安瑛培, 趙昌翰 2人 合作品, 준우수작에 金洸郁, 朴宣吉 2人 合作品이, 가작에 鄭然夷, 嚴 雄, 尹英根, 蔣廣在 4人 合作品이 각각 입선했다.

상금은 우수작 70만원, 준우수작 50만원, 가작 40만원으로 결정되어 졌다.

일반 공모와는 별도로 국회사무처가 설계틀 의뢰한 6명의 작가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8월 말까지 작품제출 기일을 연기했으나 지명설계를 의뢰받은 6명 중 金重業, 金正秀, 李光魯氏 等 3명이 작품을 제출했을 뿐 金壽根, 姜明求, 李海成氏 等 3명은 이를 거절했다.

국회당국이 말하고 있는 별도지명위촉의 경위는 「의사당신축설계의 기초적인 아이디어가 될 계획설계안을 일반공모외 의에 우리나라에서 유능하고 권위있는 건축작가 6명을 지명하여 계획설계안 작성을 위촉하였던바 이는 의사당설계에 있어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현재 3명이 작품을 제출하였음」으로 단순하게 밝히고 있다.

국회당국은 작품심사는 엄정하고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비공개회의로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와 심사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위원

- 위원장 裴泳鎬(國會事務總長)
- 위원 金允基(無任所長官)
- 〃 金昌集(弘益大學教授)
- 〃 金亨杰(建築學會長)
- 〃 愼武晨(前建築學會副會長)
- 〃 尹張燮(서울工大教授)
- 〃 李 玟(建築家)
- 〃 李均相(前서울工大學長)
- 〃 李天承(前建築家協會長)
- 〃 鄭寅國(弘益大學教授)
- 〃 洪鵬義(漢陽大學教授)

이상 11명

나. 심사기간 1968. 8. 22~8. 29(8일간)

다. 심사요령

심사위원 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 작성한 심사요령(다음 호에 게재)에 의거 작품심사를 5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함.

한편 국회당국이 밝힌 의사당건립기획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가. 총대지면적 약10만평
- 나. 건물연면적 약3만2천평
- 다. 건물종류 의사당, 의원회관, 사무처, 도서관, 공관 기타 부속건물
- 라. 건립기간 1968년을 제1차 연도로 한 9개년 계획
- 마. 소요예산 약70억원
- 라. 수용계획 남북통일과 양원제를 택하였을 경우를 고려한 의원과 기구를 수용할 수 있고 50만권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임.